

시라사키 해양공원

8 세기의 시에서도 노래하듯이 시라사키 해안의 석회암 지형은 오래전부터 여행자와 뱃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. 이 유명한 해안의 1km 나 되는 곳도 시라사키 해양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공원의 석회암 위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해안선과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.

석회암층은 2억 5,000 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페름기에 형성된 것입니다. 이 탄산칼슘 덩어리는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조개껍데기와 산호 등의 생체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공원 내의 석회암층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바위 표면에 파묻혀 있는 크리노이드(별명: 바다나리 또는 깃별나리)와 푸줄리나(멸종한 단세포 생물)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전망대에 들르고 공원 주위를 산책하려면 30~60 분 정도 걸립니다.

공원 내에는 캠핑장, 농산물과 감귤류 주스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여행 안내소가 있습니다. 안내소에 병설된 레스토랑에서는 미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'팽생이모자반 덮밥' 등의 간단한 식사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'팽생이모자반'은 이 지역에서 채취되는 해조류입니다. 보통은 간장으로 양념해 밥 위에 얹고 그 위에 치어, 아보카도, 달걀, 차조기 등의 재료를 올립니다.